

남원 공동체 새 길, 시민과 함께 열어간다

시, 마을공동체 창안대회 특색 튀는 아이디어 20개 사업 선정
'비니루 없는 점빵'·'서림 숲속 마을시장' 등 10월까지 추진
플라스틱 줄여 환경오염 막고 생활 장터 열어 아나바나 실천

“공동체의 새 길 시민과 함께 열어 갑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마을공동체 창안대회를 통해 아이디어가 특색 튀는 20개 사업을 선정해 이달부터 10월까지 본격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20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처음으로 도전하는 '새싹 사업'이며, 5개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선정된 '줄기 사업'이다.
새싹사업으로 선정된 산내면 싱글빙글팀의 '비니루 없는 점빵'은 환경오염과 생태계를 급속히 파괴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에서 시도됐다.
싱글빙글팀은 산내면의 플라마켓 '살래장'을 통해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싱글빙글팀이 운영하는 살래장을 찾는

고객들은 음식을 먹으려면 그릇과 숟가락, 젓가락 등 자신이 사용할 물품을 가져와야 한다.
또 장바구니를 가져와 물건을 구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봉읍 귀농귀촌협의회팀의 '재미난 서림 숲속 마을 시장'도 눈길을 끈다.
운봉읍귀농귀촌협의회팀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숙담을 따라 매월 3째주 토요일 운봉 서림공원에서 장터를 열어 생활에 필요한 체험학습 교육과 더불어 아나바나 등 마을시장도 함께 연다.
이 외에도 2년 차 줄기사업으로 진행하는 노암동 주민자치 발전 협의회의 '주민 주도형 노암동 마을계획 및 실행사업'과 지역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만들기 등을 목표로 하는



남원시 산내면 싱글빙글팀의 '비니루 없는 점빵'. (남원시 제공)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의팀의 '여성들의 말하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체험농장 프로그램 개발로 공동체의 꿈을 이루고자하는 지구인 체험마을팀의 '지구인 체험농장 만들기',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꿈꾸는 남원인의 밥상팀의 '도시락과 케이터링 사업 개발' 등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2일 '2019 우리마을 공동체 창안대회'를 열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공동체 창안대회에는 26개팀이 참여, 지난해 14개팀보다 10개팀이 늘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아산면 추대피해 현장을 방문한 유기상(왼쪽 두번째) 고창군수와 조규철 군의회 의장 등이 농민에게 추대현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무 추대현상 피해 최소화 온 힘

농가 "종자 불량" 주장

고창군이 출하를 앞두고 봄 무를 재배한 농가에서 발생한 추대현상(무 꽃이 피고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의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추대현상은 생육기에 추대가 발생하면 생장이 늦어지고 무 속에 단단한 심이 생겨 사실상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증상이다.
군은 추대현상 파악을 위해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군의회 의장이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피해 농가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10여 농가에서 50ha의 추대현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으나 군이 파악

한 피해는 40여 농가 153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농가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 중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가들은 유명종자회사인 A사의 종자를 예전처럼 파종했으나 올해만 유독 피해가 발생했다며 종자의 불량을 주장해 왔다.
또 불량 종자로 인해 무의 상품성이 떨어져 저온창고에 저장해야 할 실정이라며 그 비용도 1개월에 3.3㎡당 6만원으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화장 장려금 올해부터 50만원으로 증액 지원

순창군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화장 장려금을 증액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순창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의 불편이 따랐다. 이에 군은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장려금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지원 중인 화장 장려금 25만원을 올해부터는 대폭 인상된 5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군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순창=장영기 기자 jyg@kwa

'문화재 지킴이의 날' 기념식 22일 정읍 내장산서 열린다

'문화재 지킴이의 날' 기념식이 오는 22일 정읍 내장산에서 열린다.
1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 전국의 10만 회원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 연합회(회장 조상열)가 서울 경복궁에서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정읍시와 내장사, 정읍문화원, 국립공원내장산사무소 등이 후원해 전국의 문화재 지킴이 단체 대표 1000여명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정읍시립농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실록 이만 재현' 연극과 문화재 지킴이의 날 기념식, 문화재 지킴이 유공자 표창에 이어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또 오후 행사에서는 임진년(1592) 6월 22일 정읍 선비들이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여진'을 지켜낸 장소인 내장산의 용굴암과 은적암, 비래암 등 역사의 현장 답사도 진행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실록을 지켜낸 내장산에서 첫 번째 문화재 지킴이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민족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매입 장자도 한전 발전소 부지 기름 유출 흔적

이달 토양정화작업 후
주차장 시설 조성 계획

군산시가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한 장자도의 한전 발전소 부지가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장자도의 한전 발전소 부지(2428㎡) 81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환경평가를 한 결과 8개 지점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유류 저장소 인근에서는 기준치(2000mg/kg)를 12배 이상 초과한 2만5476mg/kg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휘발유 계통이 함유된 성분으로, 인체가 오래 노출되면 피부질환 등이 유발된다.



군산시 관계자들이 장자도 한전 발전소 부지에서 토양정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 제공)

발전소는 장자도와 선유도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1993년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고고산 연결도로가 개통되며 용도 폐기됐다.
이후 군산시가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18억여원에 매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발전소가동에 필요한 유류 저장시설과 이송관 주변을 중심으로 기름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말까지 토양정화작업을 마치고 주차장 조성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시, 2020년도 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 요원 모집

정읍시가 2020년도 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 요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정병검사를 받았거나 정병검사 대상자인 후계농업경영인(2020년 예정자 포함) 가운데 산업기능 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청년이다.
다만 재학이나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산업기능 요원은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

할 수 있거나 야간학교 재학 중 또는 영농 사업장에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26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명 공모

익산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4일까지다.
위원회는 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분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입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 뿐 아니라

타 시·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도 후보자로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분야별 신청인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자격요건과 접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063-859-559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